



ELLE DESIGNER



1 생 바르탱 운하 근처 잉가 샹페라의 작업실. 2 직접 디자인한 리네 로제와 소파 모델(Moore)이 엮은 잉가 샹페라.

# ATELIER AROUND THE CORNER

파리에 사는 디자이너 잉가 샹페라의 작업실을 찾아갔다. 친구네 거실처럼 친근한 이곳에서, 우리가 디자이너란 직업에 갖고 있던 편견이 구름처럼 걷혔다. *photographer* DIANE ARQUES *writer* KIM-RHEE JI EUN *editor* LEE KYONG E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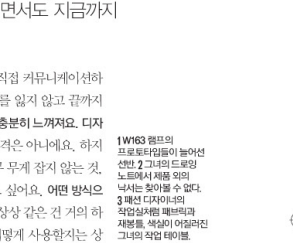
우리에겐 잉가 샹페라(Inga Sempé)라는 이름이 조금 낯설지도 모른다. 그러나 헤이(HAY), 리네 로제(Ligne Roset), 알레시(Alessi), 카펠리니(Cappellini) 등 그녀와 협업한 글로벌 가구 브랜드를 나열하려면 길이 없으니, 디자이너로서 그녀의 활약을 어림잡작할 수는 있을 것이다. 경계도 없고 자유로운 것 같아도 의외로 '위대한'이란 호칭을 붙일 만한 여성이 손에 꼽히는 디자인계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개성을 확고하게 드러낸 소수의 여성 디자이너 중 하나다. <프나 니콜라>로 유명한 장 자크 샹페가 그의 아버지라는 혹은 부후랜 형제 중 로랑 부후랜이 남편이라는 수식으로 그녀를 설명하는 것은 실례에 가깝다. 어떤 브랜드와 일하던 간에 페브릭을 영리하게 사용해 유머러스하면

서도 상큼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그녀에게 가장 어울리는 계절은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봄, 새봄에 쏟아질 새로운 디자인들을 기대하며, 파리 10구 생 바르탱 운하 옆에 있는 그녀의 아담하고 포근한 작업실로 <엘르>가 찾아갔다. 운하를 곁에 둔 강변의 한적한 거리에 경쾌한 블루 컬러로 칠한 벽을 건물이 그녀의 작업실. 바로 위층은 그녀가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다. 1층이라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아틀리에 정중앙에는 미성과 컬러풀한 천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작업 테이블이 놓여 있다. 대형 소파부터 작은 소품까지 페브릭을 꼭 넓게 쓰고 생각을 자유롭게 변형하는 잉가 샹페라 디자이너의 시작점과 같은 곳이다. 두 명의 어시스턴트와 함께 교묘한 공기 속에서 자분자분 작업에 몰두하는 모습. 얼핏 할머니의 거실처럼 평화로운 공기가 가득하다. 향간에 성격이 까다롭다는 소문도 들렸기에 잠시 긴장했던 마음이 작업실에 들어서면서 스르르 풀려났다. 대화를 나누면서는 새침한 소녀 같다가, 풀한 여성부 같기도 한 그녀의 성격이 디자인에 고스란히 담겼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큰 고민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잠란한 일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답했다. 지나치게 예민해지기를 주의하는 것이 늘 잉가 샹페라 다룬 디자인을 내놓을 수 있는 비결 아닐까. 디자이너이면서도 장식을 싫어하고, 그림을 그리지 않고, 힐스터를 멀리하는 그녀와 마주앉아 가능한 미학과 파리 69번 버스의 경이로운 노선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렇게 작은 아틀리에에서 겨우 세 명이서 일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웃음)? 팀을 카울 마음이 전혀 없어요, 나는 야망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1년에 대어섯 개 오베로 정도만 디자인하고 싶어요. 그 정도면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만들고 싶은 만큼만 만드는 게 더 사치인 세상이예요.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와 일하는데, 작업을 함께할 브랜드를 선택하는 기준은 원기요 기본적으로는 모두 가족 경영을 하는 브랜드들이예요, 작업 양도 중요하지만 작업의 방향성도 중요하기에 브랜드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신뢰가 깔려 있어야 해요. 만약 어떤 기업의 디자인 팀과 일할 경우, 중간에 사장이 바뀌거나 하면 추천하던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것, 너무 무게 잡지 않는 것, 그러면서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전혀 다른 것들을 만들고 싶어요.

프로젝트 가 흐름을 잃을 때가 많거든요, 책임 있는 경영자와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이유죠, 그래야 제 디자인이 중간에 걸려들지 않고 끝까지 확실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요. 디자인에서 유머러스한 포인트가 충분히 느껴져요. 디자인적인 개성과 실제 성격이 달라 있나요 글썄요. 아주 재미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벼운 디자인을 추구해요,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것, 너무 무게 잡지 않는 것, 그러면서 지금까지 세상에 없었던 전혀 다른 것들을 만들고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 작업해요? 무작정 닉서를 해 본다거나, 스토리를 상상한다거나... 상상 같은 건 거의 하지 않아요, 단지 누군가 내가 만든 오브제를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사용할지는 상



1 W&S 로제의 프로 투타입들이 놓여진 선반. 2 그녀의 드로잉 노트에서 채플 워의 나사는 찾아볼 수 없다. 3 패션 디자이너의 작업실처럼 메트릭과 재봉틀, 책상이 아틀리에 그녀의 작업 테이블.





# ELLE DESIGNER

상황이다. 결국 쓰는 사람이 불편한 없이 자주 사용해야 하나까요, 특별한 스토리 같은 게 있으면 기사가 더 재미있겠지만(웃음) 그저 나이와 성별, 국적에 관계 없이 어떤 사람이 오브제를 이용하는 모습만 생각해요. 당신의 가구 디자인은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디어가 무척 실용적인 건 의외군요 디자인이니까요. 당신이 싫어할 만한 이상한 디자인도 많이 했으니 걱정 말아요(웃음). 지금까지 내놓은 디자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오브제는 어떤 건가요 얼마 전 베스트베르크(Wästberg)와 작업한 램프 일(ile) 섬이라는 뜻을 품을게요. 최근 작이기도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램프 하나에 담기도 했거든요. 조작성이 쉽고, 작고, 끄고 켜기 편리하고, 벽에 걸 수도 있고, 클립처럼 어딘가에 끼울 수도 있고요. 달연히 테이블에 놓아도 좋고, 작업 속도도 무척 빨랐어요. 원래 전 좀 느린 편이에요. **지금까지 해 온 작업 중에서 특별히 힘들었던 부분도 있나요** 가구 디자인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가구가 가장 어려워요. 크기가 작은 디자인을 할 때 느껴지는 외압이 있어요. 1mm 혹은 1cm에 따라 달라지는 민감한 차이를 즐기는데 1m가 넘어가면 그런 느낌이 탈해요. **완벽주의자인가요** 완벽주의자라기보다 싫어하는 부분을 고쳐나가는 정도예요. 그것이 디자이너로서 기본 자세라고 생각해요. **디자인 외에 다른 창작 활동을 하기도 하나요?**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전혀 안 해요. 일과 관계 없는 그림은 그리지 않아요. 물론 말과 놀이할 때는 그림을 그리죠. 그 외의 상황에서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구가 제로예요. 아, 기대할 일이 아니겠지만, 테니스 치는 것도 좋아해요. **의외네요**, 어릴 때 부모님의 그림을 너무 많이 보아서일까요(그녀의 아버지 장 작 그림뿐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도 일러스트레이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보



1 디자인 개념의 베르너 비보르그(Bjørn Borge)의 테이블(Collo Alto), 일러스트 2015.  
2 쿠르츠 쿨러(Kurtz)의 테이블(Collo Alto), 일러스트 2015.  
3 클레프 스텐달(Kleef Stenlund)의 램프 'W153', 베스트베르크, 2015.

ELLE.CO.KR 102



오래된 카페와 테라스들은 파리의 보물이죠. 제가 말하는 카페는 정말 오래된 브래서리 카페예요. 요새는 카페마다 힙스터들만 와글와글해 아쉬워요.

윗층의 아티스트와 일하는 나선형 계단조차 인테리어 요소로 쓰인 아틀리에 전경.

ARTICHERIE, EST/ARTECHERIE



통 부모 때문에 그런 추측을 하곤 하는데,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데 개인적으로 흥미가 없을 따름이죠. **어릴 때부터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나요** 아니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지는 못했거든요(웃음). 하지만 오브제에 늘 관심이 많았고, 뭔가 물건을 보면 이걸 만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호기심이 있었어요. 기술이 전혀 없을 때부터요. 디자인 학교에 들어가 후에 제대로 배울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해 보지 않았지만, 꼭 한 번 디자인해 보고 싶은 것으로 크레용이나 연필을 생각해 가지고 있어요**. 아, 그리고 창문을 디자인해 보고 싶어요. 창문이 주거 환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시중에 있는 창문들은 너무 못생겼어요. **지금 살고 있는 파리에서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고 싶은 디자인이 있다면** 버스정류장이요. 그리고 요즘 버스의 색깔. 제가 어릴 때 파리 버스는 짙은 그린이었는데 그 색이 참 멋졌어요. 아, 또 공공시설에 쓰이는 탁하고 이상한 회색도 마음에 안 들어요. **반대로 파리에서 집에 드는 건** 버스 커피는 별로지만, 아름다운 파리를 죽 둘러볼 수 있는 69번 버스를 정말 좋아해요. 제가 이전에 어떤 패션 잡지와 인터뷰할 때 이 말을 했는데, 별로 세련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생략했더군요. 꼭 써주세요(웃음). 혹시 자라가 더 있다면 27번과 67번 노선도요. 그리고 오래된 카페와 테라스들은 파리의 보물이죠. 제가 말하는 카페는 정말 오래된, 누구든지 다 왕래해 왔던 브래서리 카페예요. 요새는 힙스터들만 와글와글하는 카페들이 너무 많아서 아쉬워요. **영감은 어디에서 얻나요** 일상생활이요. **당신의 아틀리에나 자주 가는 카페 같은 곳들은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데커레이션이나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일상생활에서 쓰는 모든 물건의 기능적인 면을 말한 거예요. 기능만 있다면 못생기고 재미도 없을 테니까, 기능이 좋다면하면서도 아름다운 물건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죠. **가장 최근에 산 물건은** 프라다와 비우이우를 좋아해요. 패브릭이 아름답고 오래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잖아요. 최근에 이베에서 프라다 스웨터를 하나 샀어요. 그냥 사면 너무 비싸니까요(웃음). 그런데 어떤 말을 인터뷰에서 막 해도 되나요? **디자인으로서 고강하다는 느낌이 들 때는 어떻게 승전해요** 간단해요. 쉬죠. 이탈리아를 좋아해서 가끔 여행을 가기도 하지만, 집에서 조용히 쉬는 게 무엇보다 큰 휴식이 돼요. **일과 삶의 밸런스는 어떻게 유지 하나요** 이따금씩 아레송이 작업실이나가 뻔스란 것도 없어요. 오전 7시부터 시작해서 오후엔 말을 학교에서 데리고 이른 저녁에 퇴근해요. 한 번도 없이 개인 생활을 넘치게 참람한 적은 없어요. 지나치게 일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좋은 디자이너란 자신의 생활이 제대로 유지될 때 나오는 거라고 믿어요. ■

ELLE.CO.KR 102